



3면

문 대통령, 임기 말 국정동력 유지 총력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음 4월 20일) 제2788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도내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첫날 3만1269명

4월 일일 최대 접종자 수 1만5463명의 2배 이상 상회
28일 현재 고령층 사전 예약률 79.8%로 전국 1위
도,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 등 접종 후 주의 당부

도내 지정 병·의원(위탁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전북도는 지난 27일 하루 접종자 수가 총 3만1,269명(1차 접종기준)으로 집계됐다며 향후 고령층 예방접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하루에 65세부터 74세까지 2만4,987명, 75세 이상 3,908명 등 총 3만1,269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래 기록한 일일 최대 접종자 수 1만 5,463명(4월 29일)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또한, 지난 28일 0시 기준 65세부터 74세까지 고령층 대상 예방접종 사전 예약률은 79.8%로, 전국 평균 69.2%를 넘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의 사항을 재차 당부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관찰과 응급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자는 접종 후 15~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귀가 후에도 최소 3시간 이상 주의가 필요하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찰해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날 때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추진단장인 최훈 행정부지사는 "사전 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접종 시작일을 기다려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아직 예약하지 않은 어르신에 예약과 고령층 예방접종에 가족과 주변의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접종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봐 달라"라고 당부했다. /유희상 기자

올해 전북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늘자로... 조사대상 토지 1월 1일 기준 273만4589필지
장수군 13.10% 상승... 태양광 시설 표준지 신설 반영돼

전북도는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총 273만4,589필지이며, 시장·군수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공시한다.

올해 도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9.17%로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9.95%보다 낮은 편이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LG 유플러스상가(구 현대아파트) 부지로 730만원/㎡, 최저지가는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34 입자로 230원/㎡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최고 상승지역은 장수군(13.10%)이다. 주거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시설 표

준지 신설과 표준지변동률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돼 상승했다.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5.33%)로 전반적인 제조업체 참여 장기로 인한 현상으로 밝혀졌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효천지구, 예곡지구 개발과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단지 조성, 삼봉도시개발 사업, 용진 청사주변개발, 태양광개발사업 증가 등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 변동률(8.69%)이 반영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공시지가는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일사관리 전북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http://kras.jonbuk.go.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지가 적정여부 등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유희상 기자

전북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전북도는 지난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관거버넌스 위원, 도의원, 생산자·소비자 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푸드플랜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선순환 먹거리 체계 구축, 건강하고 행복하게'

전북도, 푸드플랜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시군별 통합지원센터 설치·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농식품 안전성 강화·민관 거버넌스 협력 등 제시
내년부터 2025년까지 14개 실행과제에 8664억 투입

전북도가 지역 선순환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관거버넌스 위원, 도의원, 생산자·소비자 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푸드플랜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3개 분과 41명으로 구성된 '전북도 민관거버넌스 위원회'를 출범하고, 15회의 분과회의 개최와 시·군 간담회, 포럼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북도 광역형 지역푸드플랜'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먹거리 종합전략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부터 소비자까지 순환체계를 구축해 중소농을 안정적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는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선순환 먹거리체계 구축으로 도·농이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전북'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4대 전략으로 ▲공공형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도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보장, ▲먹거리 상생 도·농협력 활성화, ▲함께하는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이번에 제시된 핵심 추진과제는 ▲시·군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농식품 안전성 강화,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첫째, 먹거리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존 지역농협이나 민간법인이 지정받아 운영하는 시·군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확대 설치해 공공급식시장 공급기반을 마련한다. /유희상 기자

둘째, 학교 외 어린이집,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농산물 취급 비중을 늘리고, 중소농 생산자 조직 1만5,000 농가를 육성해 연중 다품목 생산·조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직매장 납품 농산물 위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공공급식 납품 농산물까지 지원하는 시책 등도 추진한다.

넷째, 전북도 먹거리 기본조례도 제정해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의 제도적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먹거리 전달 조직 확충 등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의 14개 실행과제 50개 세부사업에 모두 8,66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에 개진된 다양한 의견을 용역 결과에 반영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체계와 농업인 소득보장 등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